

**전일동향**

전일대비 1.00원 하락한 1,334.90원에 마감

24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1.00원 하락한 1,334.9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30원 하락한 1,333.6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소식에 따른 역외 위안화 환율 하락에 연동되어 레벨을 낮췄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엔화 약세와 결제수요 유입에 낙폭이 제한되며 1,334.9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4.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4.80원이다.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33.60	1337.10	1329.90	1334.90
엔화	930.00	932.69	922.17	931.75	-
유로화	1484.26	1492.82	1480.56	1492.26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45	-5.5	-11.68
결제환율(수입)	-0.36	-4.56	-9.87	-16.7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중국발 위험선호 회복에...1,32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7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34.90) 대비 9.00원 하락한 1,323.1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중국발 위험선호 회복에 따른 달러약세와 위험선호 회복 등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 7일 역레포, 기존 모기지 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이에 더해 증시안정기금으로 최소 8,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대규모 통화 완화 조치에 중국 경기부양 기대감이 확대되며 위안화는 대폭 강세를 보였다. 한편, 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98.7로 예상치(104.0pt) 및 전월치(105.6pt)를 크게 하회했다. 특히 하위 항목 중 고용관련 서베이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연준의 빅컷 기대감이 높아졌다. 페드워치에서 11월 50bp 인하 확률은 한때 60%를 상회했다. 이에 달러화는 전장대비 0.58% 하락한 100.35pt를 기록하며 약세를 보여 금일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국 경기부양 및 연준 빅컷 기대에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어 금일 국내증시 상승이 기대되는 점은 환율 하락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업체 결제, 해외주식투자 환전 수요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321.00 ~ 1330.33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789.5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9.00원 ↓
	■ 美 다우지수 : 42208.22, +83.57p(+0.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3.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111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